

뺏 올리는 '한동훈 비대위'...젊은피 수혈 '파격 인선' 주목

오늘 온라인 전국위 한 위원장 확정...29일까지 위원 인선 당 세대교체·당정관계 재정립·김건희 특검 등 과제 산적

국민의힘이 조만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국민의힘은 "26일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한 지명자 임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 지명자는 임명 후 비대위원 인선을 진행한다. 완료 시점은 오는 29일께로 예상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 지명자가 최대 12명을 인선할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그는 '실력'을 비대위원 인선 키워드로 제시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중수형'(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1970년대생 이하 젊은 피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 지명자가 젊은 세대 전문가 위주의 인선을 통해 '쇄신'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여성도 비대위원으로 다수 포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정당 비대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거론되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는 외부 인사 6명, 당내 인사 4명 등 10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등이 당시 비대위의 외부 인사였다. 70대로 올드보이에 속하지만, 보수 정당과는 거리가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립한 개혁 성향 정치인부터 하버드대 출신 젊은 신인, 20대 벤처 기업인까지 아우르는 비대위 진용이 큰 주목을 받았다.

당내 인사로도 당시 쇄신파로 분류됐던 김세연·주광덕 의원을 선임하면서 '혁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다.

비대위원 선임이 이제 막 여의도 정가에 입문한 한동훈 지명자의 주요 정치 구상의 단면을 공개하는 첫 무대인 만큼, 그가 '박근혜 비대위'의 전례처럼 '파격 인선'을 준비해 비대위 성공 및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명자가 내놓은 비대위 인선안이 상임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고, 기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자동 해산한다.

이후 한 지명자는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과 공천관리위원장 등 선거기구 인선도 고민해야 한다.

한 지명자의 향후 공개 행보에도 당 안팎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도 거침없는 직설 화법에 세련된 패션 감각 등으로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만큼, 비대위원으로서 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을 크게 흔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당내에선 한 지명자가 26일 전국위 의결 후 수락 연설을 통해 그간 품어온 각종 구상의 열거를 처음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명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6그룹'(80년대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력을 정초준하면서 '젊고 혁신적인 국민의힘'과 '낡고 부패한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대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지명자의 이런 메시지에 힘이 실리려면 국민의힘 내부의 세대교체와 주류 기득권 '물갈이' 등 고강도 인적 쇄신도 전향적이고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지명자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한 '대통령 최측근' 이미지 활용법도 관심이다. 여권 지지도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받는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 지명자 등판 후 처음 열리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버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사 의혹 특검법 대응 방향이 당장 직면한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서 오케스트라 공연단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 지지율 2주째 36.3%...보수층서 6.1%p ↓

리얼미터...국힘 39%·민주 41.6%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36.3%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4%포인트(p) 내린 60.8%였다. '잘 모름'은 0.4%p 증가한 2.9%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7%p ↑)에서 올랐으나, 서울(6.1%p ↓)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3.3%p ↑), 중도층(1.6%p ↑)에서 올랐으나, 보수층(6.1%p ↓)에서는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3%p 오른 39.0%, 더불어민주당은 3.1%p 내린 41.6%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尹, 서울 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국가가 좋은 선물 되게 노력”

연휴 잇단 사고소식에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1시간가량 예배를 드린 뒤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르신은 “응원한다”며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요청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고, 한 어린이로부터 사랑을 선물 받기도 했다. 이날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우 시민사회수석 등이 동행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교회다. 교회 내 베넬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잇단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성탄절 연휴에 서울 아파트 화재 현장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 사고로 인해 부상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전국의 재난 안전 관련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尹, 박상우 국토·강정에 보훈부 장관 임명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 박 장관과 강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강 장관은 26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며 주택 공급, 도시 계획 등에 대한 실무·경험을 인정받았다. 강 장관은 숙명여대 총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경

제자문화의 위원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차출尹정부 장관·참모들, '양지' 아닌 '험지'에 도전하나

원희룡, 계양을 출마 시사

박민식·방문규 “당에 위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으로 윤석열 정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차출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들의 출마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인지도와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차출 인사들이 국민의힘 텃밭으로 인식되는 '양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 '험지'나 그 밖의 전략적 요충지에 출마해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차출 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출마 지역을 당의 전략적 선택에 맡기고 '자갈밭' 도전을 준비 중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찌감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경기 성남 분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던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은 최근 출마 지역구를 '당에 배지 위임하겠다'고 선언했고,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영등포를 출마를 당이 요청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요청에 따라 최근 개각 추가 명단에 오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양인 수원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 장관 등을 앞세워 수원 교두보를 확보,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 남부 벨트에 여당 깃발을 꽂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 출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 서초을-경기 분당을 출마에 최근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편, 국민의힘 사령탑 취임에 앞둔 한동훈 지명자의 경우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비례대표 당선 가능 순번을 받거나 수도권 상정적인 지역에 출마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적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일매